

INTERIORS

7. Jul 2014

1986 ▶ ISSUE NO.334
www.interiorskorea.com

334

THEME

HOTEL

BATHTEL

HOTEL VERNET

25HOURS HOTEL, BIKINI BERLIN

SMALL HOUSE BIG DOOR

DAEMYUNG SONOFELICE VILLAGE

DROP ECO-HOTEL

WHITEPOD HOTEL

EXHIBITION

KOREAN PAVILION 2014, la Biennale di Venezia



Burkhardt Leitner Constructive at EuroShop 2014 부르크하르트 라이트너 콘스트루kti프, 유로숍 2014

부르크하르트 라이트너 콘스트루kti프(Burkhardt Leitner Constructive, BLC)의 전 시부스가 2014 유로숍에서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이용한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확성, 혁신성, 모듈화라는 이 회사의 주된 강점이 물에는 감성적인 매력과 결합하였다. '디테일과 사랑에 빠지다(In Love with Detail)'라는 슬로건은 산업채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적 집단으로부터 관심을 모으며 이 회사의 기능적이고 미니멀적인 시스템 건축을 이용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우선, 전사부스의 외관은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패브릭이 '콘스트루kti프 플랫(Constructiv Flat)' 시스템을 가로질러 양쪽에 늘어져 있다. 외부에서는 비치는 검은색의 성기고 얇은 천이 한결같은 표면을 형성하고, 그 뒤로 후리 모양의 내부 직면이 간강감이 느껴지는 그림자극을 묘사하고 있다. 내부 직면은 수공의 효과를 내는 비스코스르, 독일의 TV 범죄 시리즈인 타르오르트(Tatort)의 오픈 크레디트에도 잠시 선보였었다. 어두운 이 외관은 개방된 입구와 출구된 두 개의 큐브를 강조해준다.

입구에 수직으로 세워진 거울로 마감된 벽체가 주 출입구를 가리키고, 거울의 반대쪽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회사의 사무실을 표시하는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이



설계 | ipollo Pletz Group GmbH www.igroup.org
 설계팀 | ipollo Pletz Group GmbH / Peter ipollo, Gunter Pletz, Till Goldberg,
 Jonas Herwig, Verone Schell, Axel Kruse, Caroline Linn
 시공 | 10ma Atelier für Messer-Design GmbH www.10madesign.de
 위치 | EuroShop 2014, Düsseldorf, Germany
 면적 | 182㎡

주최 | 공간학 | 사진 | Zooey Braun



공간 내 두 번째 공간은 외관을 부수고 B.C의 이동 가능한 공간시스템인 오토박스(Otobox)를 선보이는 데 활용되었다. 이 시스템은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지 않은 오픈 플랜 사무실에서 종종 회의공간으로 이용되지만 바 혹은 라운지로 변형될 수도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양쪽 벽면 중 한 면이 어두운 목재로 마감되었고 거기에 특별히 디자인된 선반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오토박스가 품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흰색의 두꺼운 탈 카펫과 양극산화 처리한 검은색 시스템이 이곳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부여한다.

기다란 카운터는 이 부스에서 소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카운터와 특대형의 조명은 둘 다 패브릭으로 만들어졌고, 이 회사가 가치를 두는 것들을 패브릭 위에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글자들은 아래서부터 LED로 빛을 받아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카운터의 측면에 장식적인 디자인이 프린트되어 있는데 이는 B.C의 재단시스템을 이용한 콜라주로서, 이 테마는 기념품 컬렉션을 진열한 타워와 온실의 유리 벽체에도 적용되었다.

B.C가 가능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반면, 이 전시부스의 설계 비치는 패브릭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 형식주의적인 시스템 건축은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시스템 건축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살스럽게 제시하고, 그 외관과 자연적인 식물의 성장에서 임의의 구조를 만나게 된다.



그러져 있다. 여기서부터 방문객은 - B.C의 제품들이 수상한 디자인상이 프린트된 - 유리가 부착된 '콘스트루티브 폰(Constructiv Pon)'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리셉션 카운터로 가게 된다. 카운터 뒤를 향해 '콘스트루티브 클리크(Constructiv Clik)' 시스템으로 세워진 6m 높이의 벽체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회전하는 패널을 선보인다.

출입구 위쪽에 매달린 말풍선 구름은 최근에 발행된 B.C에 관한 책에서 발췌한 친구, 동료, 파트너의 인용문들을 써 넣은 것으로, 이 인용문들은 인접한 벽체의 다이어그램에도 적용되어 있다.

공간 내 첫 번째 공간은 출입구 바로 옆에서 이어진다. 이 공간은 클립을 끼운 혁신적인 측면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캔버스 같은 구조의 얇은 흰색 천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천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콘스트루티브 플라 페넬(Constructiv Flo Pannel)' 구조를 완전히 덮고 있다. 비치는 얇은 천은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제품의 혁신성을 표현해준다. 큐브는 이 부스를 온실처럼 돌출시키면서 외부의 벽체를 뚫고 나와 있고, 그 안에 심어진 열대 식물들은 온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풍부한 식물들은 무역박람회외의 어수선함 속에서 고요한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아자나무 아래에 놓인 의자들은 방문객들에게 신간을 훑어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B.C 시스템의 연결 장치들은 마치 이 온실의 한 가운데 놓인 흰색의 직육면체 박스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새싹처럼 보인다. 이 회사의 창립자에 대한 오마주로 '콘스트루티브 폰' 시스템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유리를 켜 타워에는 수년간 그가 그의 직원들을 위해 디자인했던 생일선물들을 비롯한 기념품 컬렉션이 진열되어 있다.



